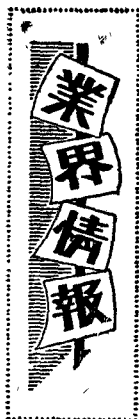


대한 양계 협회 소식

본협회 포천군 분회 신청



대한양계협회 포천군 분회신청이 지난달 본협회 집행부에 접수되었다. 포천군 양계업자들은 지난 1974년 11월 5일 가칭 포천군 양계인회를 결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앙양하며 회원의 번영향상을 목적으로한 회칙(정관)을 제정하고 아울러 임원명단을 본회에 통고했다. 포천군 분회는

연락사무소를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신읍리 50-1 (전화 309)에 두고 육계부 회장에 양동환씨, 총무에 이성묵씨, 간사에 김만호, 임성진, 오철권 씨를 감사에 원용준씨를 회원에 박복록, 이기완 임영근, 배완근, 이동만, 양 선, 장원석씨, 채란부 회원에 정 현, 원용식, 홍종현씨를 회원으로한 임원 명단을 함께 통보해 왔다. 본 분회 신청은 1월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승인하게 될 것 같다. 포천군 분회(가칭)가 1975년도 실시할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양계산물의 수급조절 및 안정을 위하여 초생추를 수급조절한다(300,000수)
2. 양계강습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문제점에 해

결방안을 토의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년 2회)

3. 매월 지역별로 생산비를 계절별로 조사하므로써 정확한 생산비를 파악하여 생산자를 보호한다.

4. 매월 지역별로 육계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사하여 출하량을 조절하며 통계자료를 만든다.

5. 시세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여 양계산물에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7. 육계 및 초생추의 가격협정을 기한다.

7. 유통개선을 위해서 생산자 상호간에 신속한 시세 정보의 교환과, 양계산물에 유통경로를 수시 점검하여 중간상인의 폭리를 배제 하도록한다

8. 분과 및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양계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평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9. 초생추, 양계기구, 서적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알선하여 양계가에 수익을 증대한다.

10. 본 양계협회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천군에 거주하는 양계업자의 참여를 권장한다.

11. 군남에 항상 참여하여 육계의 가격조절 및 안정을 기하여 회원 전원에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김재춘 회장에 감사패 수여



12월 13일 사료협회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본회 김재춘 회장에 조세감면법 및 사료관리법 축산물가공법등 축산인을 위한 축

산법 개정과 농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지대한 공적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스라엘 양계협회 장 미키·에들린씨 본회 래방

지난 1월 16일 이스라엘 양계협회장 미키씨가 대한양계협회를 방문하여 본회의 운영상황을 간단히 설명받고 아울러 이스라엘 양계현황을 설명했다. 이스라엘

에서는 지난 74년 8월에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 실시한 닭경제능력검정에 Anark사의 Yarkon을 출품하였으나 그다지 좋은 성적을 보지는 못했었다. 미 키씨는 올해도 닭경제능력시험에 산란계와 부로일러를 모두 출품할 것을 약속했다. 이스라엘에서 육종된 Anark부로일러는 해외능력검정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한다. 미키씨는 농수산부장관을 예방하고 본회 송정택전무의 안내로 대한사료도제장과 소신 증계원을 돌아보고 떠난바 있다.

종계수급조절 위원 간담회



지난 12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는 재경이사 및 종계수급조절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계수급조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회의 참석인사로는 재경이사로 박도현씨, 박승만씨, 민덕기씨, 최창해씨, 원용택씨(김시호 이사 대리), 차두홍씨, 이재조씨, 김필성씨, 이광렬씨, 종계수급조절위원으로 오봉국씨, 오세정씨, 박근석씨, 설동섭씨, 이재근씨, 강금노씨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세정교수의 사회로 G.P.S. 3,000수 도입

의 가당여부문제가 토의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수입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Cobb를 Hubburd로 대체수입 하는데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모았다. 또한 종계의 수입시기는 수입업자에게 일임키로 했으며 본회는 정부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移 轉 案 內 ●

▲ 한국양돈협회(회장 최윤식씨)는 작년 12월 11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주소: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190(2층)

전화번호: 26-5010, 1063

▲ 농림신문사 이전

농림신문사는 아래주소로 이전했다.

이전주소: 시내 종로구 견지동 110-11

전화번호: 72-4382

전화번호 변경

◇ 유한양행

농축과 전화번호 변경 68-6265를 69-4603로

◇ 한국 화이자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변경된 번호: 29-5641~7

◇ 삼강사료

신영사료는 지난 12월 13일 부터 회사명칭을 삼강사료로 변경했다.

제10회 산란계경제능력검정 실시

대한양계협회는 제10회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종계장에서는 적극출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검정기간: 1975. 4. 1~1976. 8. 15(500일)
2. 검정장소: 본회 검정소(경기도 김포군 소재)
3. 검정수수: 10群 1800원내외
4. 검정대상: 국내외에서 육종된 산란실용계
5. 검정방법:
 - 가. 검정 1(고에너지 고단백): 1반복구 30수씩 3반복
 - 나. 검정 2(중에너지 중단백): 1반복구 30수씩 3반복
6. 출품종란수: 1群당 800개
7. 출품의뢰서: 접수마감: 1975. 2. 15(토)
8. 종란수집기간: 1975. 3. 7(목)~3. 8(토)
9. 부화기간: 1975. 3. 9(일)~3. 31(월)
10. 출품료: 1群당 5,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양계협회 회장 김재춘

全國 畜産人 懇談會



한국축산단체연합회는 21구랍 23일 6시 동화빌딩 그릴에서 전국 축산관계 대표급 인사들을 초청, 갑인년을 회고하면서 새해의 축산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축산인 간담회를 갖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농수산부에서 이재영 식산차관보, 김영진 축산국장과 관계공무원, 각 축산관계단체 대표들, 양계분야, 낙농 및 비육우분야, 양돈분야, 사료분야 등 각계 각종 인사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지금까지 성장하여 온 축산발전의

과정을 더듬고 지난해를 회고하여 현안문제점과 앞으로의 축산인들의 자세에 대한 사항 등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토의된 주요 내용은 현재 유류파동이후 국제사료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불안정 속에 축산물은 제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형원인데 현재의 경제여건 등으로 둔화되는 소비추세를 감안하고 곡류사료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축산인들은 생산을 조절하고 축산발전을 위해 축산인들이 서로 단합해야 하며 단합을 위해 어떤 축산인 결성대회라든지 모임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간담회에서는 이번 축산법 통과에 공이 큰 김재춘 한국축산단체연합회장(대한 양계협회장·국회의원)이 인사를 통해 제90회 국회에서 축산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축산관계인들이 많이 국회에 나가서 다른분과 위원들에 뒤지지 않는 힘이 되기 바란다라고 부언하고 축산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생산과정에서 통제를 하라는 시달에 부응해서 생산자는 수요량을 결정하여 처음부터 수급계획을 세워 사료와 종계 등을 거기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영진 축산국장은 처사에서 '74년도 축산의 반성과 75년의 축산시책 방향을 설명했는데 74년도를 회고해 보면 우선 가축수의 획기적인 증가를 보여 생산기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행한 일이며 그 수를 보면 한우는 74년 6월말 통계로 177만두 9월말추정 180만두(73년보다 20% 증가), 돼지는 6월말 223만두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한 숫자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 닭은 10%증가한 2,500만수로써 수요공급에는 별 차질이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하고 정부의 지상과제중의 하나인 수출문제에 있어 작년보다 배가 넘는 2,400만불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중 돈육수출만도 800만불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관계인의 숙원이었던 축산관계법들을 김재춘 회장의 공으로 정비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①한뉴 육우 시범포장을 약 8억원 규모로 시설, ② 초지문제에 있어 서독 기술진이 내한하여 연구중에 있고, ③ 국제협력의 차관으로 5,000두의 젖소를 6월경에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교류에 있어 이창구 박사가 국제수의 방역회의에, 마사회장 김동하씨가 아시아 경마회의에, 오봉국교수가 세계가금학회의에, 농수산부 낙농과장 유남열씨가 국제낙농회의에 참석하여 40~50개의 세계 논문출판에 관할 하는 등 많은분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바 있다.

앞으로 ARD에서 농촌진흥문제 회의를 열 예정에 있으며, 국

내의 축산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단체는 정비를 하고 필요한 단체만 육성하여, 지난해 축산단체연합회의 창립을 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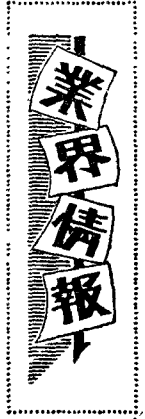
이어서 김영진 국장은 75년의 축산의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① 국제 곡류사경으로 배합사료의 공급이 곤란했던 점, ② 생축가격이 농한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 넉넉한 생축가격을 유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③ 축산 기금을 확보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년도에는 1) 7부도정으로 54만석 정도의 살이 절약되는 반면 농후사료부족을 조절해 나가야 하겠으며 2) 초식가축의 적극적 육성, 3) 유통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작년에는 농업총산액 중 축산이 15%였는데 앞으로는 축산인 모두가 합심하여 20~30%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충남 부화업자 농수산부와 본회에 진정서 제출

—축산법 시행에 앞서 더 좀 폭넓은 경과 조치 요망—

지난 1월 충남도내의 영세부화업자들이 대한양계협회로 진정서를 보내왔다. 충남 44개의 영세부화업자들이 서명한 이 진정서는 1974년 8월9일자로 공포된 축산법시행 개정령중 중계십사규정에 수반하여 전국부화업자들이 난관에 봉착해있음을 지적하고 일차적으로 농수산부 장관에 진정한후 대한양계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을 해온 것이다. 이 진정은 중계등록사업이 축산발전을 위한 시책이라곤 하지만 법시행에 앞서 더 철저한 사전검증이 요청되며 법 운영의 완전을 위해서 더

좀 폭넓은 경과조치가 있어야 할을 강조하며 75년 사업년도(2월~6월)만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달라는 진정서를 보내왔다. 대한 양계협회는 업자들의 진정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농수산부와 협의하여 업자들에 통고해주시기로 했다.



74년 하반기 조세감면 신청일자 박두

1974년 하반기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향유하려는 조세감면 신청마감일이 2월 28일로 박두했다. 양계업자 및 양축업자는 본 기간에 신청을 하지않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므로 빠짐없이 기간내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양계 1973년 2월호(통권 40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초생추 가격협정회의

병아리 가격과 안정을 위한 부화분과 위원회가 1월 21일 오후을지로 2가에 있는 삼일관에서 강금노씨의 부화업체 중계급 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75년에는 초생추와 수요량 보다 생산가능 수수가 많기 때문에 각자 주문에 의해서만 입란하기로 하고 병아리 값은 2월에 150원, 3월에 170원, 4월~7월말 까지 180원, 8월 부터는 200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편 육용계 병아리는 1월부터 110원을 받기로 결정, 이에따른 가격표는 양계협회가 각 부화장에 배부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본협회 전북지부

'74년도 정기총회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석삼) 1974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0일 전주시 약사회관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발전에 공이큰 인사와 업체에 감사장및 공로상을 수여하고,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로 1974년도의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가결산심의, 1975년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심의에 이어 임원개선이 있었다.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김남기

부회장 : 한광수, 유병환, 홍광표

감사 : 손인기, 박옥룡

—韓牛入殖에

65억원 투자—

농수산부는 소·돼지값하락에 따른 양축농가의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 6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미 지원한 한우입식자금의 상환기간을 8년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월 17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새마을 소득증대사업비에서 지원하는 65억원은 양축농가로부터 모두 7만 3천 5백마리(송아지 6만 5천마리, 비육우 8천 5백마리)의 소를 구입, 75년 신규사업으로 농가에 입식시키기 위한 지원 자금인데 조건은 년리 9%에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다.

◆ 초생추 생산출

하에 관한 공고 ◆

대한양계협회는 매달 조사하는 초생추 생산 출하 보고서의 신속한 보고를 바라고 있다. 초생추 출하보고서는 매달 말에 왕복엽서로 각 부화장에 발송하고 있는데, 이 복신 엽서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어 통계와 보고등에 차질이 많으므로 각 부화장의 성실한 보고가 요망되고 있다.

사료가격 평균 15% 인상 판매



……양계 산물가격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사료업체는 1월 6일을 기해서
자 공장별로 일제히 사료가격을
상향조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
번 사료가격 인상은 환율인상전
구매한 6,400톤의 옥수수를 각 사
료공장들이 사용하게됨에 따라 불
가피한 실정에 있는데 이번 상향
조정된 사료가격은 12.7환율 조절
으로 환율 인상후 실효율을 개설
한 188,962톤에 대해서는 2.26일

수 없는 실정에 있어 또 한차례의 사료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료가 인상과 제반
생산 코스트의 상승으로 양축가는 더욱 경영에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해 졌다.

이와 반해서 양계 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은 사
료가격 인상 후 약간은 상승되었으나 현재의 상
승된 가격도 아직까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므로 양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월간 양계가 지난 1월 6일 인상한 배합
사료가격을 몇개의 공장을 샘플로 하여 조사한 공
장도 가격은 아래와 같다(괄호안은 중전가격)

부터 10%+α로 다시 사료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 초 생 추 사료 92⁷¹원 (81.60)
- 중 추 " 80²⁵ " (70.28)
- 대 추 " 70²⁹ " (61.72)
- 산 란 초 기 " 80⁹² " (70.56)
- 산 란 중 기 " 75⁶⁵ " (65.99)
- 산 란 말 기 " 72⁶⁴ " (61.01)
- 부로일러전기 " 97⁶⁴ " (85.48)
- 부로일러후기 " 93³² " (81.18)
- 부로일러중계 " 89³⁵ "
- 젓 소 사 료 " 56³⁴ " (47.33)
- 젓 먹이 패 지 " 101⁵¹ " (89.15)
- 어 린 패 지 " 80²³ " (71.36)
- 중 패 지 " 68⁸⁰ " (60.04)
- 미 입 신 돈 " 57⁸⁷ "
- 포 유 모 돈 " 60 "
- 비 육우(전기) " 71²⁴ " (61.47)
- " (중기) " 60⁶³ "
- " (후기) " 55⁹³ "
- 비 육 돈 " 73 "
- 중 모 돈 " 51²⁰ "

- 회 장 · 유윤수(유임)
부회장 : 강태현(중앙축산, 유임)
 정태원(홍성사료, 유임)
이 사 · 정규봉(서부사료, 신임)
 이상진(천일곡산, 유임)
 차두홍(한일사료, 유임)
 김영희(영육농장, 유임)
 박승만(한국카길, 유임)
 정인범(삼성사료, 신임)
 이용구(제일사료, 유임)
 김시호(대한사료, 유임)
 유시진(유경사료, 신임)
 최성모(동아제분, 유임)
 유용술(영남제분, 유임)
감 사 : 도성기(한성사료)
 강금노(신촌사료)

- 회 장 : 김길원씨 (한국비타민에
드쿼터스 <주> 사장, 신
임)
부회장 : 최죽중씨 (한국사료첨가
제공업사 사장, 유임)
허정섭씨(녹십자 수의약
품<주>사장, 신임)
이 사 : 김홍기씨 (대한신약공업
<주>, 결 고문)
신정재씨(과학사료사장)
강승조씨(이글케미칼 사
장, 유임)
조성호씨(한국화이자
<주> 사장)
이완상씨(삼우화학 <주>
사장)

동물약품협회총회

지난 1월 10일 74년도 동물약
품협회 총회가 동 협회 회의실에서
서 총 회원 24명 중 13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협회는
식순에 따라 총회가 진행되었
으며 새로운 임원개선이 있었는
데 개선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감 사 : 김윤호씨(한국고-킹
<주> 사장)
조성룡씨(대성미생물
<주> 사장)
전무이사 : 이희구씨

한국사료협회정기총회

한국 사료협회는 74년도 정기
총회를 12월 27일 개최하고 다음
과 같이 임원진을 개편했다.

사료 原價報告 의무화

公正去來 위해

경제기획원은 치약, TV, 石油, 연탄, 사료 등 37개 獨寡占品目を 生産하는 上位 5位 以內의 業體에 對해 年 1회씩 原價 및 損益關係자료를 정기적으로 提出도록 지시했다. 獨寡占 品目 生産 業體에 對해 原價報告義務를 지운것은 公正去來 法制定에 앞서 獨寡占品目的 價格規制와 公正去來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企劃院은 物價 政策局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作業班을 구성업체로부터 提出받은 原價 및 損益資料를 分析하여 合理的인 價格政策을 수립할 계획이다. 獨寡占業體는 所管部處를 통해 年 1회의 定期原價報告(會計年度 끝난 후 2個月 以內)外에 原價變動要因이 있을때 마다 追加資料를 企劃院에 내고 關稅

廳은 月別製品 및 原資材在庫狀況을 關稅廳은 對象品目主原料의 月別 輸入狀況을 그 다음달 15日까지 企劃院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獨寡占生産業體는 제품생산, 出荷 在庫실적도 月 1회씩 제출해야 한다. 개37 對象品目은 物價에 미치는 영향이 큰 品目으로서 ① 5社 以內 生産集中度가 51% 이상 ② 3社以內 生産集中度가 70%以上인 品目 ③ 個別 法律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品目이다. 所管別 品目中 農水産部에 해당되는 品目으로는 사료, 분유, 라면, 밀가루, 비료, 농약 이다.



서해농산<주> 설립

아직까지 사료공장이 부재했던 강원도에 서해농산주식회사가 새로이 설립됨으로써 강원도내 양축가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동회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우선 일산(日産) 40톤 규모로 가동되고 있으며 상표는 「크로바」표라고 한다. 동회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박해준씨

전무이사: 권 배씨

총무부장: 김순명씨

생산부장: 김평호씨

본사: 원주시 학성동 960의3

전화: (원주) 5917. 5918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해남빌딩 319호

전화: 28-0370

새마을 공장

東物産준공

전남 무안지역에 농어촌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료 자급화 계획의 일환으로 새마을 공장인 동오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김동원)가 지난 1월 12일 준공식을 가졌다. 동회사의 제품으로는 배합사료 일체와 단미사료로 어분, 폐분, 해조분, 녹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면 성남리 TEL 무안 37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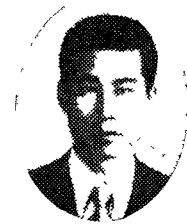
서울연락사무소: 68-0993

사료과학 발간

현대 양계사에서는 75년 1월부터 「사료과학」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월간지는 국내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사료에 관한 논문 등을 실어 앞

으로 축산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곽종형 교수 제 13 회 문화상 수상



지난 74년 12월 30일 경상남도 도청 상화실에서 제 13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경상대학 축산학과 곽종형(농학박사) 교수가 자연과학부문 본상 수상자로 뽑혔다. 곽교수는 경상대학에서 가축사양학을 강의하면서 펠릿트 사료에 관한 연구(양계사료개발)의 20여편의 논문을 한국 축산학회 등에 발표하여 산학협동 및 축산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이 상을 수여받았다.